



제목	Iran's Political Economy since the Revolution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Cambridge University Press
발행일	2015. 8. 20.
저자	Suzanne Maloney
출판국가	영국
페이지수	585
ISBN 또는 ISSN	978-0521738149

내용 요약

이 책은 이란 혁명이 중동의 전략적인 모습을 변경시킨 지 35년이 지난 후 그 영향을 파악하려는 연구이다. 혁명 이전의 정치 경제, 1977~1980년의 경제적 변동, 1980~1989년의 방어 비용, 1989~1997년의 지하드 재구축, 1997~2005년 레드라인(Red Lines) 내에서의 개혁, 2005~2013년 아마디네자드의 포퓰리즘, 에너지와 이슬람 공화국, 경제 체제 등 혁명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이란 경제를 개관한 것이다. 저자에 따르면, 이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박탈, 쇠퇴를 경험하였고, 하타미 정부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자유화를 경험하고 있다.

이란의 경제적 쇠퇴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많은 기회와 전환점을 놓친 결과이다. 혁명 세력들이 소련, 유럽, 일본과 가스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란은 세계에서 중요한 가스 수출국이 되었을 것이다. 또 라프산자니(A. H. Rafsanjani)가 신중하게 국제 관계에 대처했다면 1992년 혁명 이후 처음으로 상승 기류를 탔을 것이다. 당시에는 냉전이 종식되고 이라크 후세인(S. Hussein)에 대한 미국의 반감이 드러나던 때이므로 소원했던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온화해질 수 있었다. 만일 하타미가 거시적인 해결책을 포용하고 아마디네자드가 위협을 감수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슬람 공화국은 더 현명한 경제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. 기회들은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다. 2015년 이란은 국가가 국제적 공동체의 지위를 되찾을지, 세계국가의 경쟁과 불신으로 쇠퇴를 가속화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귀로에 서 있다.